

2015 새 설계

신 우 철 완도군수

“어패류 산업 지원 강화...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

특산물 홍보 ‘데이 마케팅’ 활성화
미래지향적 SOC 확충 주력
역사·자연 등 관광상품화 박차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는 민선6기 군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군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실현을 위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겠다”면서 “지난해에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군정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추진해온 하드웨어 사업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사업도 더욱 활성화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역량강화 사업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SOC확충으로 생동감 넘치는 완도건설 ▲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 ▲2017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준비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을 실현해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접근성 향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미래 지향적인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생동감있는 완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군수는 “수산업 1조원 시대의 부자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어패류산업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해조류산업은 생산력 증대,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면서 2017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올해 완도군의 가장 큰 자산이며 최고 경쟁력인 완도 바다를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당당히 선포해 깨끗한 바다 지키기의 대국민(對國民)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정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수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수산업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군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데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명예면장 등 완도 서포터들을 활용해 차별화되고 공격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나간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SOC확충으로 생동감 넘치는 완도건설
- ▲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
- ▲2017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준비
-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현해 소비자 신뢰구축

5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고품격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유적 정비 및 장보고대사와 청해진의 역사도 재조명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성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청산도 슬로우 걷기축제’는 전국 최고의 저비용 고효율 축제의 명성을 유지하고 구들장은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서두를 방침이다. 특히 무인도서 불 밝히기 등 ‘섬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다도해를 완도만의 독특하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신 군수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산물, 주민들의 인심을 영상매체에 노출시키는 차별화되고 감성적인 영상 마케팅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행복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완도 복지재단을 설립해 활어저 있는 복지서비스 시스템

을 일원화하고 노인과 장애우, 여성, 어린이,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복지행정을 지원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제거, 쾌적한 환경조성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은 미래 꿈나무인 지역 인재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학사업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생교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 군수는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군민을 위해 몸과 마음가짐을 다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신 군수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라고 강조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깊이 자각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계발,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이와 같이 계획한 일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민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현장에서 답을 얻고 전략을 마련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부장 ejchung@

‘진도 아리랑 조청’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획득

(사)진도 민속문화예술단(대표 조오환)이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진도 아리랑 조청’(사진)이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라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를 갖고, 진도 아리랑 조청 등 50개 업체 133개 제품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해 통합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진도 아리랑 조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상표 심의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현지 조사,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원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전체 공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선정했다.

또 진도 아리랑 조청은 진도군 사회적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 ‘모다나눔’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진도 아리랑 조청’은 도라지, 울금, 쌀, 호박, 생강 조청 등으로 친환경 재료로 만들고 있으며, 조청 제조는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다려내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은 지난 2007년 1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0년 전라남도 예바사회적



기업,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제2013-64호)으로 인증받은 진도지역 제1호 사회적 기업이다. ‘진도민속문화예술단’의 단원들 대부분은 50세가 넘는 나이이지만 조청 제조는 물론 일주일에 4회 이상의 공연과 강도 높은 연습들을 소화하고 있다.

조오환 대표(전남도지정 제40호 조도뫼베노래 예능보유자)는 “다문화가족과 초·중·고 학생 교육,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청 제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JC회장에 박장원씨 선출

박장원 가학수산 대표가 진도 청년회(JC) 회장에 선출됐다.

진도청년회의소는 최근 진도 초등학교 철마체육관에서 신임 회장단 선출과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국회의원과 이동진 군수, 주선종 군의장 및 군의원, 장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도내 각 로컬 신임회장, 진도청년회의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에는 상임부회장 김호, 내무부회장 이장필, 외부부회장 윤영훈, 감사 박동원·장봉수, 사무국장 용치평씨가 각각 선임됐다.

신임 박장원 회장은 “청년의 열정! 비상하는 진도 JC”를 2015년 슬로건으로 내걸고 회원들 상호 소통과 화합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진도 JC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장원 신임 회장은 지난 2009년 진도청년회의소에 입회해 기록표창분과 위원장, 전남지구 이사, 한국 JC 이사, 한국 JC 위원장 등을 각각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양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학수산 대표를 맡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택시 적정대수 173대”

24% 감차 필요...郡, 감차위원회 구성·보상 사업 추진

택시총량제 앞두고 용역보고회

‘택시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해남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택시사업자 대표와 개인택시지부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택시운행 적정대수를 판단하는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사인 고려경제 연구원은 용역결과 ‘운행 적정대수는 173대’라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227대 중 55대가 적은 수치이다. 용역사인 고려경제연구원은 “택시 실차율과 가동률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현 운행 수보다 24% 감차가 적당하다”고 보고했다.

군은 앞으로 연도별 감차 계획을 수립해 적정대수 운행에 노력할 계획이다. 택시운송사

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감차 위원회’를 구성해 감차사업 보상금 산정과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심의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 법을 시행 추진 일정에 맞춰 감차위원회 구성과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총량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적정 택시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택시 수급계획을 세우는 제도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2007년 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